

# 동국사, 한중일 불교교류 가교 역할 나선다

##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 건립, 삼국 불교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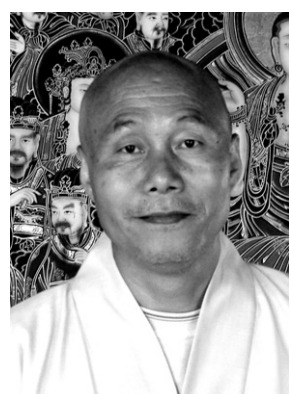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한중일 동북아 3국 불교 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사(주지 종길)는 일제 강점기동안 일본 불교의 한국침탈과 관련된 사료와 군산지역의 자료를 전시해 역사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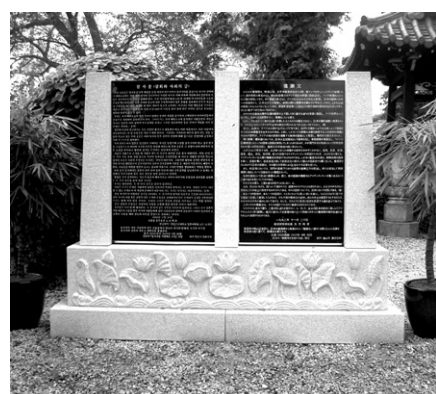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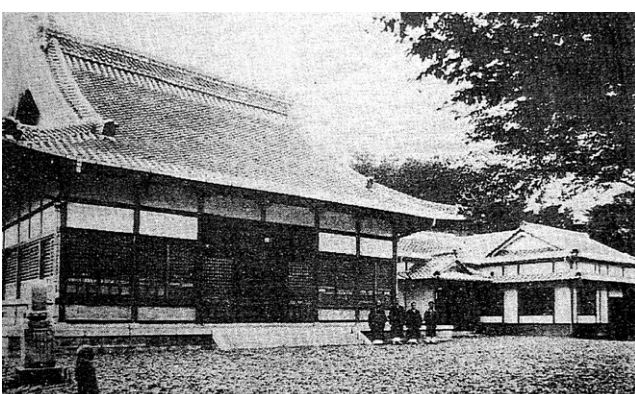
또 한중일 3국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난징대학살 기념 '한중일 평화 대법회'에 참여해 동북아 3국의 불교교류를 활성화 하고 동국사에서 '한일 불교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개관할 예정인 불교자료전시관은 그동안 일본의 이치노헤스님이 기증한 수백점의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들과 군산지역의 자료를 전시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근현대 불교사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길 스님은 "역사 연구는 물론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과거사를 통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한국과 일본 불교를 비교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전시관은 한옥 형식으로 건축해 보물1718호 삼존불등 한국 중세불교문화재와 근대 문화재는 물론 한일 양국의 건축양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동국사 주지 종길 스님(사진 왼쪽)은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을 건립해 삼국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금강사(현재 동국사) 사진 가운데. 1992년 일본 조동종이 발행했던 참사문이 비문으로 제작돼 9월 16일 동국사에 설치됐다. (사진 오른쪽)



### 8월 이치노헤 기증품 5백점 전시

### 정진실·도서관 설립 이용토록

### 9월 28일 한일불교학술대회 개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자료관에는 불교대학과 개인 정진실, 작은 도서관도 함께 설립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 신행 포교의 장으로 활용된다.

동국사는 창건 기념일인 9월 28일 동국대 일본불교연구소(소장 김호성 교수) 및 동북아 불교평화협의회(회장 다이도인 大東仁 정토진종)와 공동으로 '한일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양국 불교학자들이 한

· 일간 실질적 교류방안과 식민지시대 한국불교에 미친 일본불교의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일본 이치노헤 스님으로부터 새롭게 기증받은 500여점의 불교유물과 일제 강점기 군산관련 사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종길 스님은 "일제 강점기 일본 각 종단 지도자들의 친필 유묵과 휘호 24점을 전시해 당시 일본 불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포교에 임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시된 사료들 중 일부는 서울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대어 전시 중에 있다.

또한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 평화대법회에도 일본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동참해 동북아 3국의 불교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종길 스님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선연적 노력만 했지 실질적 역할은 없었다. 오히려 현재는 치열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다"며 "동북아 3국은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상호이해와 존중, 상생협력을 통해 불교가 3국의 화해와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한편 불교를 매개로한 동북아 3국 불교계가 불교문화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인 동국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전임로인 '동국사 길'이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2012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원행 스님 한양대 행정학 박사학위

### '함허 선사 <현정론>' 주제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 오는 2월 한양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원행 스님(사진)은 '조선 초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함허 선사의 <현정론>에 관한 연구-정책 논증모형에 의한 접근을 중심으로'를 주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원행 스님은 논문을 통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초기 성리학의 수용과 행정개혁, 신진 정치 관료들이 주장하는 배불론(排佛論)의 형성 및 추이과정을 탐색하고 배불론의 영향과 호불론(護佛論)의 형성과 그 답론을 파악했다.

특히 호불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함허 득통(涵虛得通, 1376-1433)선사의 <현정론(顯正論)>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 관료와 유학자들의 불교비판에 대한 반박 답론과 그것이 조선 중기 백곡처능(白谷處能, 1617-1680) 스님의 호불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고 호불 담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행정과 정책전반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추적했다.

원행 스님은 "함허 스님은 <현정론>을 통해 불교에 대한 유교의 공격이 본질을 벗어나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본질을 현양(顯揚)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에 따르면 함허 선사는 책벌의 시대적 상황에서 <현정론>을 통해서 유교측의 일방적 비판과 공격에 맞서 배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배불론자들의 편파성을 지적한 인물이다.

원행 스님은 "<현정론>과 <유석의론>은 꺼져가는 불교의 법등을 다시 밝히고 호법의 의지를 보여준 한국불교사상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저서"라고 평



가했다. 스님은 또한 함허 스님의 이러한 저술이 조선중기의 불교단 암정체의 분위기에 위기를 느낀 백곡처능이 배불의 부당성을 상소한 <간폐서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간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행 스님은 "함허의 호불론의 골자는 불교에도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가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불교가 결코 반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점과 삼교회통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진리가 상통할 뿐만 아니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유석의론에서 도교까지 포함한 삼교일치를 주창해 한국사상에서 삼교회통이라는 사상사적 흐름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원행 스님은 이 논문의 말미에 "함허 선사가 <현정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숭한 종교편향 정책을 비롯해 조직적인 왜곡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 소위 평방기를 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는 오직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행정과 종교와 종교간은 엄정하고 바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평등과 화합, 상생과 공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나눔의 집 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조선불교전서> 등 원전과 42권의 단행본, 47개의 논문, 6개의 외국문헌을 참고해 이 논문을 완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주노동자 모국 학교 돕는다

###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 네팔 희망 기금 협약식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의 초등학교 돕기에 나섰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와 광주 네팔공동체는 1월 15일 광주 광산구 하남에 위치한 센터에서 네팔 초등학교를 돕기 위한 '네팔 희망의 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협약식은 네팔공동체 회장 비스터 씨를 포함해 총무 비투 등 외국인근로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정기 후원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네팔 초등학교의 학교시설과 학용품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를 마친 이주성 센터장은 "한국에 온 네팔근로자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만 받아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를 문외와, 자신들의 고국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지 비스터 씨는 "네팔 근로자들이 고

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우리도 고국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한국인들의 고마움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고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국인 단체와 손을 잡고 기금 협약식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주성 센터장은 "몇 해 전부터 동남아 지역의 학교들에게 후원을 해 오고 있었지만, 근로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고국에 보내는 모습은 이채롭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진 모습이라, 향후 자신들의 기금을 통해 모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어려운 한국생활에서 큰 자긍심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팔 희망의 기금'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월 모금이 진행되며, 1년에 1~2회에 걸쳐 지원된다. 귀국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와 광주 네팔공동체는 1월 15일 광주 광산구 하남에 위치한 센터에서 네팔 초등학교를 돕기 위한 '네팔 희망의 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후에도 자신이 후원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기금의 사용을 위해 네팔 근로자가 직접 오는 2월까지 학교선정과 지원물품에 대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등에 치우쳐 있다면, 이번 기금사업은 한단계 진일보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기금을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에서 전달하고, 귀국 후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모국을 위한 기금사업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을 하는 근로자와 일하는 의미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돕기사업은 좋은 노동의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단체의 소속감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애정과 우정이 쌓고, 더 나아가 한국생활에 더 즐거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 '자연 치유 모험' 겨울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

참좋은우리절은 1월 4~6일, 1월 11~13일 각각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운영했다.

1월 4-6일에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연, 치유, 모험'을 주제로 불교습의와 한나투인 성교육, 숲길명상, 숲속의 집 체험, 눈썰매 타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1월 11-13일 진행된 마인드 케어 청소년캠프는 마음조절 및 두뇌개발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해 심리검사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사미수행 및 우뇌활성화를 위한 두뇌개발 등 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회일 스님이 학생들에게 숲길명상과 사미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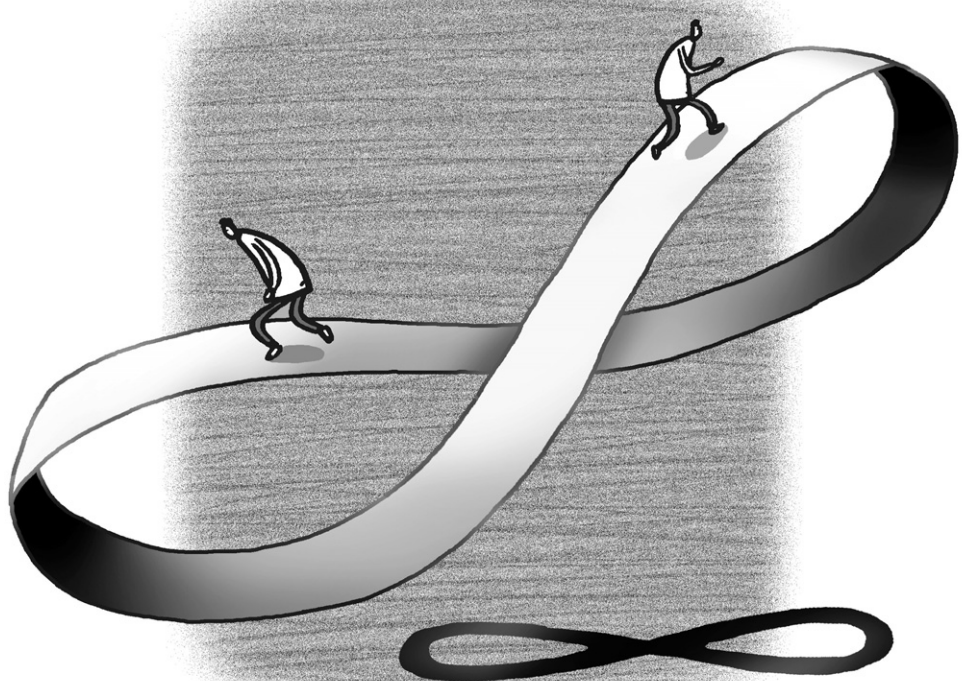
참좋은우리절은 "마인드케어 청소년캠프는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정서적 불안감과 산만함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생활속의 불법수행 ②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 좌천이냐 승진이냐



사람이 나고 죽는 걸 윤회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게 아니라 끝난 데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죽음과 탄생은 흰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흰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흰 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뭇 생명체의 몸 성분이 되었다가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 구름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집에서 한 철, 저 집에서 한 철 돌아가며 산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네 자식, 네 부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로 뒤섞여가며 수억겁을 거쳐 왔으니 내 부모, 네 부모, 내 자식, 네 자식 가릴 게 없다.

돌고 도는 사이에 때로는 사람이 새가 되는 일도 있고 새가 사람되는 일도 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미물에서 고등 동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천차만별 층층으로 오르 내린다. 승진이냐 좌천이냐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한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좌천을 두려워해야 한다. 승진의 길은 불법의 생활화에 있다.

협찬 FC부터